

# 산불, 세쿼이아 군락지 덮쳐 일부 고목 불타, 소방대원 군락 지키기 작전

캘리포니아 시에라 국립림에서 번진 산불이 자이언트 세쿼이아 군락지를 덮치며 수천 년 된 거목들이 불길에 휩싸였다. 이번 화재는 번개로 촉발돼 9일까지 확산됐으며, 일부 고목의 수관에 직접 불이 옮겨붙었다.

프레즈노 카운티에서 발생한 가넷 파이어를 담당하는 제이 트레이시 대변인은 "수관에 불이 붙은 나무를 진화하기 위해 나무 타기에 숙련된 산불 진화 요원들이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트레이시는 "이 나무들은 숲과 지역사회 모두에 소중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지켜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소방대원들은 나무를 지키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상 습도를 높이기 위한 스프링클러 라인을 설치하고, 나무 줄기에 내화 포일 담요를 씌웠으며, 주변의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고, 잔불을 찾기

위해 순찰을 벌이고 있다.

세쿼이아는 캘리포니아 시에라네바다 산맥 서쪽 사면 구간에서만 자생한다. 줄기 지름이 거대하고 높이는 90m를 넘을 수 있으며, 체적 기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다. 같은 삼나무과에 속하는 레드우드도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로 꼽힌다. 일부 세쿼이아는 수령이 약 3,000년으로 추정된다.

가넷 파이어는 지난 8월 24일 시작됐으며, 지난 주 초 100에이커에 달하는 백킨리 그로브 남동쪽까지 번졌다. 세쿼이아는 원래 낮은 강도의 불길이 솟방울을 열어 씨앗을 퍼뜨리고, 지면의 덩불을 없애 새싹이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나 이번 화재는 훨씬 강도가 높아 위험이 되고 있다고 트레이시는 전했다.

# 글렌데일서 결혼 축의금 6만불 훔쳐

글렌데일에서 결혼 축의금 약 6만 달러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글렌데일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최근 자정 무렵 발생했다. 한 남성이 결혼식장에 들어와 상자를 들고 비상구로 달아났으며, 곧이어 대기 중이던 메르세데스 SUV 차량을 타고 현장을 벗어나는 장면이 감시 카메라에 포착됐다.

경찰은 용의자를 40세 전후의 백인 또

는 중동계 남성으로, 보통 체격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은 상자 안에 하객들이 건넨 현금과 수표 약 6만 달러가 들어 있었다고 진술했다.

신부 나던 파라하트는 현지 방송 KABC와의 인터뷰에서 "사건을 알게 된 순간 음악이 꺼지고 모든 게 멈췄다. 나는 친구와 친척들 곁에서 무너져 울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 대낮에 괴한 10명 보석상 난입 싸늘이 샌호세서 SUV로 들이받고 곡괭이로 진열장 부셔

샌호세의 한 보석상에서 대낮에 수십 명이 난입하는 대담한 강도 사건이 발생해 점주가 크게 다쳐 지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지난 6일 오후 2시 9분경 '킴 흥 주얼리(Kim Hung Jewelry)'에서 발생했다. 보안 카메라 영상에는 검은 후드와 마스크를 쓴 10여 명의 괴한이 포드 익스플로러로 매장을 들이받고, 곡괭이 등으로 진열장을 부수며 귀금속을 쓸어 담는 장면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88세 업주가 넘어져 유리 파편에 베이는 부상을 입었으며, 병원에서 뇌졸중 진단까지 받았다. 조카에 따르면 업주는 퇴원했지만 "다시는 가게에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샌호세 경찰은 현장에서 최소 한 명이 총기를 소지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범인들은 여러 차량을 타고 도주해 현재까지 신원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최근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이어지는 '집단 강도'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밀피타스의 카르멘 몬타노 시장은 "지금은 사실상 범죄 유행 상황"이라며 개빈 뉴섬 주지사가 범죄 대응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주 검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강도·절도 등 재산 범죄는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주지사실은 최근 샌호세와 LA가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대도시로 평



▲ 샌호세의 한 보석상에서 대낮에 수십 명이 난입하는 대담한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SNS 캡처

가됐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으로 지난해 유권자들이 승인한 주민발의안 36의 자금 집행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법은 반복적인 소매 절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통과됐지만, 후속 예산 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몬타노 시장은 "주지사가 약속한 자금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뉴섬 주지사실은 성명을 내고 점주의 회복을 기원한다며, 조직적 소매 절도를 막기 위한 법안 서명과 경찰 지원 확대, 고속도로 순찰대 태스크포스 운영 등을 통해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발의안 36은 본래 '경범죄 수준의 반복 절도 범죄자에게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협소한 법'이라며, "이번과 같은 폭력적 강도 사건에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www.faithandhopemedical.or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  
(빌립보서 4: 6-7)

**Chris C. Shin, MD**

- 미국내과보드 전문의 (Board Certified)
- 방글라데시 LAMB 미션병원 내과 과장
- 인도 Manali 미션 병원 내과 컨설턴트
- 신창은 내과 원장 (2002-2012)
- UCLA / West LA VA 내과 레지던트
- Rush Medical College, MD, 시카고
- UC Irvine, University of Michigan
- 연세대학교 치의예과 재학 중 미국 유학

오랜 의료봉사의 경험으로 환자의 마음까지 살피는 의사

# 신창은 내과

Chris C. Shin, MD

이제 다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해 진료하겠습니다.

30년 의학 경험과 지난 10년간 아시아 오지에서의 의료봉사 경험을 바탕으로 생명을 선물하는 신창은 내과에서 진료 받으세요!

**OPEN 진료 시간**  
8 AM - 4 PM (월요일 ~ 금요일)

찾아오시는 길  
91 Fwy  
평컨 Lincoln  
West Anaheim Medical Center  
신창은 내과 건물 204호  
오렌지 Orange  
비치 Beach Blvd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진료 예약 **714. 577. 2340**  
408 S. Beach Blvd. #204, Anaheim, CA 92804